



강원도를 '빅데이터 요람'으로 만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11일 강원도 춘천 국립강원대학교에서 문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출범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김상헌 네이버 대표(왼쪽에서 4번째)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네이버가 지원하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빅데이터 활용한 창업자·기업 지원사업
네이버 등 1050억 규모 투자펀드 조성
박대통령 "빅데이터가 경제 도약 이끌것"

네이버가 지원하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11일 강원도 춘천 국립강원대학교에서 출범했다. 빅데이터 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요람'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에서 10번째로 출범한 강원센터는 총 1267㎡ 규모다.

강원센터는 먼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 검색·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포털'과 분석기법 및 분석정보를 거래하는 '빅데이터 마켓'을 구축한다. 또 예비창업자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클라우드소싱 플랫폼 'K-클라우드'(가칭)를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소싱을 활용해 강원지역 전략산업인 관광과 헬스케어, 농업을 혁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강원센터는 빅데이터 분야 창업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10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중기청·기업은행이 700억원 규모를, 강원테크노파크 투자조합과 강원신용

보증재단이 350억원 규모의 투융자 펀드를 조성·운영한다. 이날 출범식에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소싱, 강원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112개 기관이 참여하는 14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이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과거 강원도가 천연자원으로 우리 산업화를 뒷받침했다면 앞으로는 빅데이터 산업을 새로운 자원으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병근기자 dionys@donga.com

롯데홈쇼핑, 자발적 참여로 더 따뜻한 '나눔 릴레이'

천사데이 기부·네팔 봉사·멘토링 등
임직원이 직접 후원대상과 방식 선정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으로 공감 UP



롯데홈쇼핑의 '나눔 릴레이'는 나눔활동을 자율적, 자발적으로 즐기면서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 사회공헌활동이다. 임직원이 투표로 후원대상을 선정하고 기부금전달은 물론 봉사활동까지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롯데홈쇼핑과 월드비전이 함께 하는 '희망날개 롯데클럽' 발대식. 사진제공 | 롯데홈쇼핑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나눔활동을 자율적, 자발적으로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활동들이 눈길을 끈다.

롯데홈쇼핑의 '나눔 릴레이'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에 따른 사회공헌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선정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임직원이 후원하고 싶은 단체를 직접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기부금 전달, 봉사활동까지 임직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매일 하루를 '천사데이'로 지정해 기부방향을 실시한다. 당일 주문건수에 1004원을 곱한 금액을 비영리 구호단체와 사회공헌 재단에 기부하고 임직원이 참여해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을 펼친다. 지금까지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해비타트, 임흥길 휴먼재단, SOS어린이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등이 롯데홈쇼핑과 협약을 맺고 나눔 릴레이에 동참했다.

하는 5월 나눔 릴레이 프로그램은 네팔 지진 참사 관련 복구 활동 지원으로 긴급 변경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구호키트, 위생용품, 방수천 등 물품 마련 및 의료봉사, 임시숙소 건립 지원 비용 등 지원 방안과 함께 사내 바자회, 기금 모금 등 임직원 기부활동도 모색 중이다.

● 임직원 자발적 참여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
2월에는 '만만한 도전'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직원들이 아동양육시설인 서울 SOS 어린이마을을 찾아 영유아를 돌보기도 했다. 베이비박스 유기기된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시설의 운영비 지원,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아동보호사업 후원,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재단의 대표적 문화예술사업인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후

원을 하고 있다. 재단은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문화,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와 드림합창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월드비전과는 '희망날개 롯데클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월드비전이 결연하고 있는 청소년 중 방송, 영상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롯데홈쇼핑 방송 전문 인력들이 직접 꿈을 지원하고, 멘토와 함께하는 영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멘토링 사업이다. 롯데홈쇼핑은 총 20명의 학생들을 선발했으며, 최근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교육기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4월14일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후원을 위해 6500여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8명의 장애아동이 위탁가정에서 1년 동안 보살핌을 받는 데 사용된다.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3월6일에는 임직원들과 함께 대한사회복

지회 서울영아일시보호소를 방문해 아기돌보기, 장난감만들기, 이유식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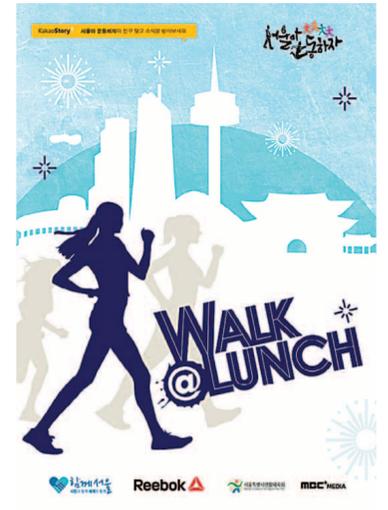
홀트아동복지회의 '굿굿(GoodGood)한 엄마' 캠페인도 지원한다. 이는 최저생계비로 어렵게 생활하는 미혼모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30명의 미혼모 가정에 매달 20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한다.

홀트아동복지회와는 4월28일부터 요보호 아동 및 미혼양육모 지원을 위한 '다이어패밀리박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슬로건은 '아기를 지키는 한 뭉치'이다. 지난 해 12월 홀트패밀리로 위촉된 구름빵 인형을 후원자들이 구매해 직접 만들고, 구매비용으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미혼양육모 가정 아이들의 양육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름빵 DIY 세트는 다이어패밀리박스에 포장돼 후원자들에게 배송된다. 2013년 기준 요보호아동 발생 수와 같은 6020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유통 및 판매 활동과 수익금 기부, 홀트아동복지회는 수익금을 통한 요보호아동, 미혼양육모 후원활동,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2016년까지 캐릭터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구매는 롯데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롯데아이몰(www.lotteimall.com)에서만 가능하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이사는 "롯데홈쇼핑 나눔 릴레이는 후원 단체 선정이나 지원 방식의 제한 없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롯데홈쇼핑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점심먹고 청계천 한 바퀴

리복-서울시, 내일부터 '워크앳런치' 행사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리복이 후원하는 '서울이 운동하자 캠페인'의 첫 번째 프로그램 '워크앳런치(Walk@Lunch·사진)'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리복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워크앳런치는 바쁜 사회생활 속 운동 시간이 부족한 2040 직장인들과 운동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5060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운동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거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자 기획됐다. 식사 후 30분 내외를 걷는 것만으로도 평균 200kcal가 소모되며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점 등 일상생활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앳런치는 13일을 시작으로 6월1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12시~13시) 총 8차례 진행되며, 매회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코스는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수표교까지 1km 남짓 걸어가 반환점에서 인증도장을 찍고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거리는 총 2.15km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리복 양말, 다양한 피트니스를 경험할 수 있는 1회 체험권 등이 주어진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파워에이드를 마시고 아디다스 교환권 타자

제품내 코드 입력하면 즉시 당첨 확인

코카콜라사의 스포츠 음료 브랜드 파워에이드가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와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파워에이드x아디다스(사진)' 코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볼레지수가 치솟는 여름철을 스포츠를 통해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PC나 모바일 웹 페이지(Powerade.co.kr)에 접속해 구매한 파워에이드 전 제품의 캔 따개, 페트 제품 병목에 적혀 있는 코드를 입력하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코드 입력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등 1000명에게는 아디다스의 의류 및 신발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제품 교환권 10만원권, 2등 1만5000명에게는 파워에이드 마운틴 블라스트 240ml 캔 교환권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5월 11일부터 8월18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되며, 코드가 새겨진 제품은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입 가능하다.

최현길 기자

게임대회 승부조작 시도한 일당 7명 검거

브로커가 프로게이머 매수 실패 '불발'
경찰이 게임대회의 승부조작을 시도한 일당과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게임대회 승부조작을 시도한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고용한 브로커들이 프로게이머 매수에 실패하자 호텔에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승부조작을 위해 브로커들에게 4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경기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브로커들을 감금·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로 브로커가 프로게이머를 회유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등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중에 발목 잡힌 SK텔레콤T1 리그 오브 레전드 MSI 준우승

SK텔레콤T1이 전 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LoL) 스포츠 리그 최강 타이틀을 놓고 격돌하는 '미드시즌 인비테이션얼 2015(MSD)'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SK텔레콤T1은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탤라하시 도널드 L. 터커 시빅 센터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중국의

EDG에 2-3으로 패했다. SK텔레콤T1은 첫 세트를 쉽게 잡아내며 승기를 잡는 듯 했다. 하지만 상대의 기습공격 전략에 2-3세트를 내리 내주며 베팅 끝에 몰렸다. 4세트에선 '페이커' 이상혁의 출전으로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하며 균형추를 맞췄으나, 5세트에서 이어진 EDG의 파상공세를 막지 못하며 결국 무릎을 꿇었다. EDG는 미드시즌 인비테이션얼 초대 우승팀의 영예와 함께 10만 달러의 상금을 차지했다. SK텔레콤T1은 5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김병근 기자